

OECD 경기선행지수 가이드북

Analyst

김명실

ms_kim@sk.com

+82-3773-8917

Analyst

염상훈

yum@sk.com

+82-3773-8882

● Focus: 미국과 중국은 Good, 유럽은 불투명

- 2012년 2월 중 OECD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기준 4개월 연속 상승, 경기모멘텀의 긍정적인 변화 이어짐
- 개별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강한 신호
-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월에 발표된 수치가 큰 폭으로 수정됨
- 지난달 중국 선행지수는 가파르게 하락하며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2월 발표치의 경우 4개월 연속 상승하는 것으로 수정됨
- 반면 유로존의 경우 지난달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2월 발표치는 보합상태가 2개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수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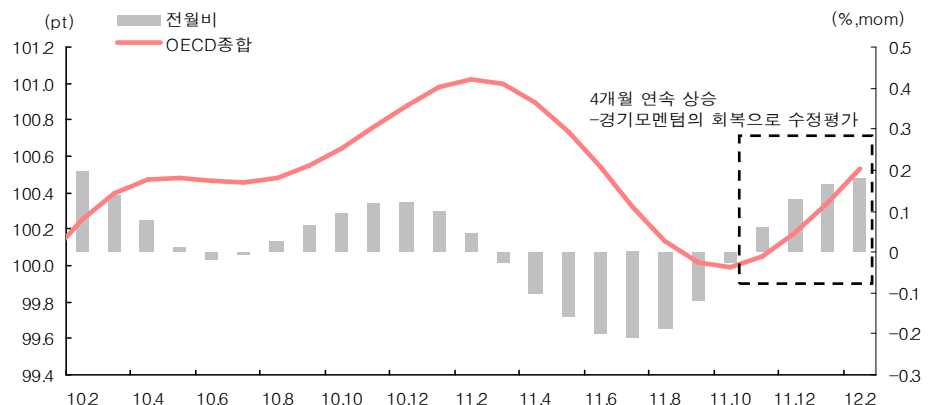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란

- 33개 국가의 회원국을 종합해 CLI를 계산, 6개의 비회원국의 지수도 함께 산출
-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은 4단계로 구분
- 기준순환일 및 구성지표의 선정에서부터 추세·진폭 조정 작업 등 총 8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지수 산출
- OECD 전체 경기선행지수의 국가별 가중치는 미국(35.38%), 일본(10.32%), 독일(7.26%) 등의 순, 한국은 8번째로 높은 가중치 국가임

● OECD 경기선행지수의 시사점 - 국내수출경기와 글로벌 경기동향 파악에 유용

-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은 국내 수출 증가율에 3개월 선행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변동 역시 국내 대중 수출에 선행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수출 추세를 예측하는데 도움

OECD 종합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자료 : OECD, SK 증권

OECD 경기선행지수 가이드북

● Focus : 미국과 중국은 Good, 유럽은 정체

- 2012 년 2 월 중 OECD 경기선행지수 동향 :** 2012 년 2 월 OECD 경기선행지수가 100.5 를 기록, 4 개월 연속 상승(전월대비) 하는 등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경기 모멘텀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경기국면 전망은 지난달의 '경기 모멘텀의 긍정적 변화(positive change in momentum)'에서 '경기 모멘텀의 회복(regained momentum)'으로 수정평가 되었다.
- 국가별 2 월 OECD 선행지수 동향 :** OECD 회원국 개별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강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유로지역 국가별로는 이태리 및 프랑스의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 반면 나탄란 반면 독일 및 영국의 경우 경기모멘텀의 긍정적인 변화 지속을 나타냈으나 지난달 평가에 비해서는 약화됐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BRICs 국가의 경우 전월에 비해 보다 강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다.
- 종합적 평가 :** OECD 경기선행지수가 4 개월 연속 상승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 경기는 호조를 보인 반면 유럽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수치에서 미국은 경기회복 시작, 유럽 역시 경기회복 임박, 중국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나타났으나 2 월 발표치의 경우는 전월과 다르게 대폭 수정됐다. 미국의 경기회복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으나 유럽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2 개월 쯤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월의 하락과는 달리 4 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2 월 선행지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졌으며 반면 유로존 경기의 경우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6 을 기록,
전월 대비 2 개월 연속 상승하여
기준선 100 에 근접하는 모습

OECD 경기선행종합지수 추이 요약

(장기추세치 = 100)

구분	가중치(%)	11.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경기전망
OECD 전체	-	100.0	100.1	100.2	100.3	100.5	0.2	-0.5	Regained momentum
(유로지역)	-	99.8	99.6	99.6	99.6	99.6	0.0	-1.9	Potential turning point
(아시아5개국)	-	99.3	99.4	99.6	100.0	100.4	0.4	-0.4	Regained momentum
(선진7개국)	-	100.0	100.1	100.3	100.5	100.7	0.2	-0.4	Regained momentum
미국	35.38	100.1	100.4	100.7	101.0	101.3	0.3	0.5	Regained momentum
일본	10.32	100.3	100.4	100.6	100.8	101.1	0.3	0.3	Regained momentum
영국	5.29	99.4	99.3	99.3	99.4	99.5	0.1	-2.0	Potential turning point
독일	7.26	99.5	99.3	99.2	99.2	99.2	0.0	-3.1	Potential turning point
프랑스	5.21	100.0	99.9	99.8	99.7	99.7	-0.0	-1.3	continued sluggish activity
이탈리아	4.29	99.9	99.7	99.6	99.5	99.4	-0.2	-2.1	continued sluggish activity
스페인	3.32	100.8	100.9	101.0	101.1	101.2	0.1	1.0	-
한국	3.65	99.3	99.3	99.3	99.4	99.6	0.2	-0.9	-
중국(비oecd)	-	99.4	99.6	99.9	100.4	101.0	0.6	-0.1	Regained momentum

자료 : OECD Stat, SK 증권

주 : 아시아 5 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선진 7 개국은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 OECD 경기선행지수란

- OECD 경기선행지수란** : OECD 는 1980 년대 초 회원국의 경기종합지수를 편제하기 시작해 현재 33 개 국가의 회원국을 종합해 CLI 를 계산하고 있으며 6 개의 주요 비회원국의 경기선행지수도 함께 작성한다. 지역별로 구분한다면, 7 개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이루어진 G-7, 유로존에 속하는 12 개국을 포함해 총 15 개국 유럽연합(EU-15), 그리고 아시아 5 대 경제대국 등을 대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작성된다. 그리고 회원국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해 OECD 는 OECD 회원 국가들과 지역별 경기와 산업생산 등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종합 선행지수를 계산한다.

지역 및 국가별 OECD 종합선행지수

The **OECD-Total** covers the following 33 countrie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he **G7 area** covers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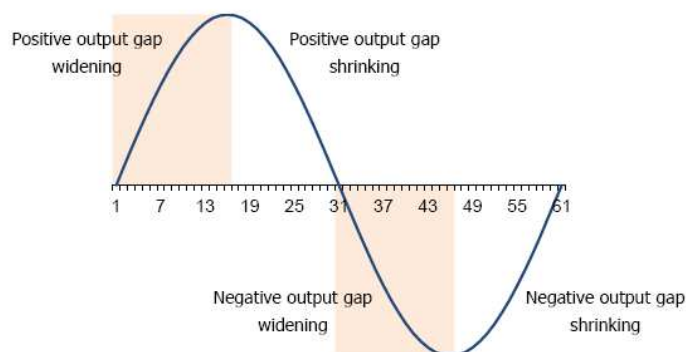
The **Euro area** (only Euro area countries that are members of OECD) covers the following 15 countries: Austria, Belgium,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taly, Ireland,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Spain.

The **Major Five Asia area** covers China, India, Indonesia, Japan and Korea.

자료 : OCED Methodological Notes

-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해석** : OECD 는 CLIs 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을 4 단계로 구분하는데, ① CLIs 가 100 을 상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확장(expansion), ② CLIs 가 100 을 상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후퇴·하강(downturn), ③ CLIs 가 100 을 하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수축·침체(slowdown), ④ CLIs 가 100 을 하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회복(recovery)등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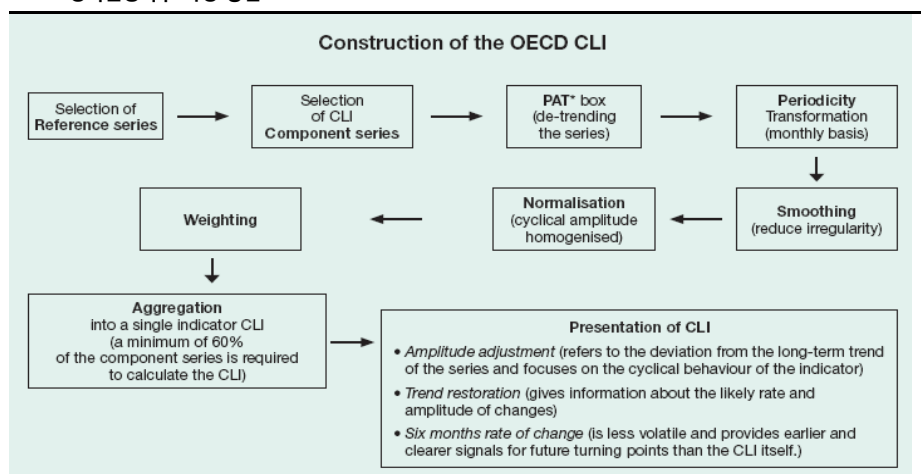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해석



자료 : OCED Methodological Notes

- OECD 경기선행지수 작성법** : OECD 종합경기선행지수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경기전환점 예측을 위해 고안된 지표다. 작성법은 아래에 나와있듯이 기준순환일 및 구성지표의 선정에서부터 추세·진폭 조정 작업 등 총 8 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별 가중평균 작업을 통해 종합경기선행지수가 만들어 진다. OECD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세·순환(또는 추세·순환·불규칙) 계열을 이용해 선행지수를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PAT 필터를 이용한 구성지표의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작성하고 있다.
- 기준순환일과 구성지표의 선정** : 통상 한 나라의 경제의 기준순환일은 분기별 GDP와 월별 경기지표(대부분 국가의 경우 전체 국민경제순환의 대응변수로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기준순환일이 GDP 기준으로 바뀌는 추세)의 순환일을 비교해 결정된다. 구성지표 선정의 경우 실무적 기준(Practical criteria),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에 의해 선정이 된다. 실무적 기준이란 통상 m 월의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m+2 월 초에 공표가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속보성(timeliness)이 있는 구성지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m+1 월 초에 모든 구성지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표는 데이터 공표 자체가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2~5 개월 정도의 이동평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 동 자료의 최종월 수치는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추후 실적치가 공표될 경우에는 동 데이터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구성지표가 과도하게 수정되지 않는 것이 CLI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밖에도 구성지표의 발표주기(frequency)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분기 지표 보다는 월별 지표가 선호된다.
- 경제적 기준이란 각국 경제의 주요 부문의 활동을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부문별 후보지표를 고려해 구성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에 있어서 소비자 및 기업의 태도지표 등 질적 지표, 금융지표 및 실물경제의 양적 지표 간 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 작성 방법



자료 : Predicting the Business Cycle "How good are early estimates of OECD CLI?", SK 증권

국가별 구성지표 예시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9개)	이탈리아(6개)	스페인(5개)
기업 서베이(3) - Construction(판매가격)전망, 제조업전망(생산), 제조업전망(수출주문) 소비자 서베이(2) - 소비자자기대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실물지표(2) - 신규자동차 등록, 주택착공허가 금융지표(1) - 프랑스 SBF250 지수 물가지표(1) - 소비자물가지수	기업 서베이(2) - 제조업전망(생산), 제조업전망(주문) 소비자 서베이(1) - 소비자신뢰지수 실물지표(2) - 제조업 신규주문량, 독일로부터 수입량 물가지표(1) - 소비자물가지수	기업 서베이(1) - BTS 제조업 가동률 전망 실물지표(2) - 승용차 등록수, 건축 생산 물가지표(1) - 소비자물가(주택부문 제외) 금융지표(1) - 스페인 IGBM 지수

자료 : OECD,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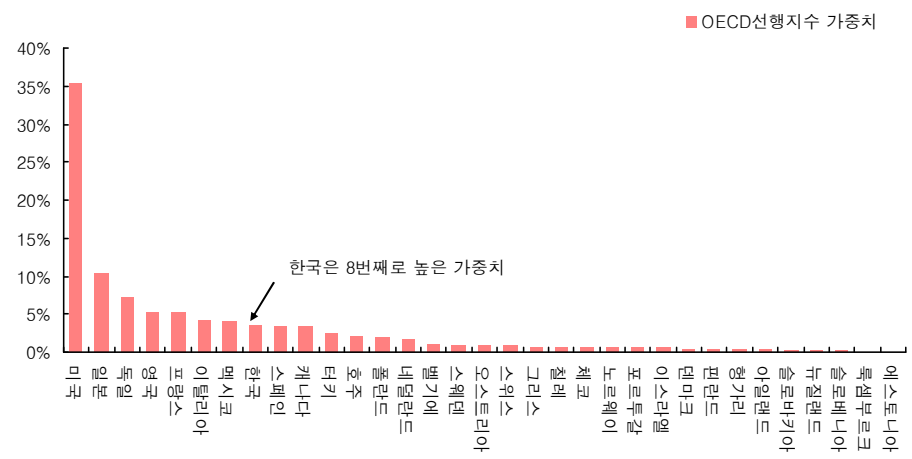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와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 차이

OECD 경기선행지수 (6개)	통계청 경기선행지수(9개)
BSI(업황), 코스피 지수, 재고순환지표, 재고량(역계열), 장단기 금리차(3년물 - 1일물 금리), 순교역조건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자기대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원자재지수(역계열), 수출입물가비율

자료 : OECD, 통계청

- OECD 종합경기선행지수 국가별 가중치** : OECD 종합 경기선행지수의 국가별 가중치는 미국(35.38%), 일본(10.32%), 독일(7.26%) 3 개국이 전체의 5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국의 경우는 영국(5.29%), 프랑스(5.21%), 이탈리아(4.29%), 멕시코(3.90%), 한국(3.65%) 등의 순이다.

OECD 종합경기선행지수 국가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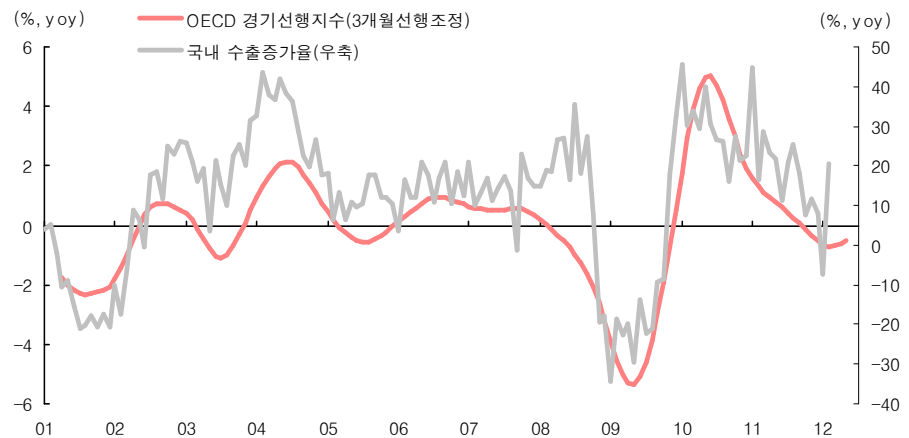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 OECD 경기선행지수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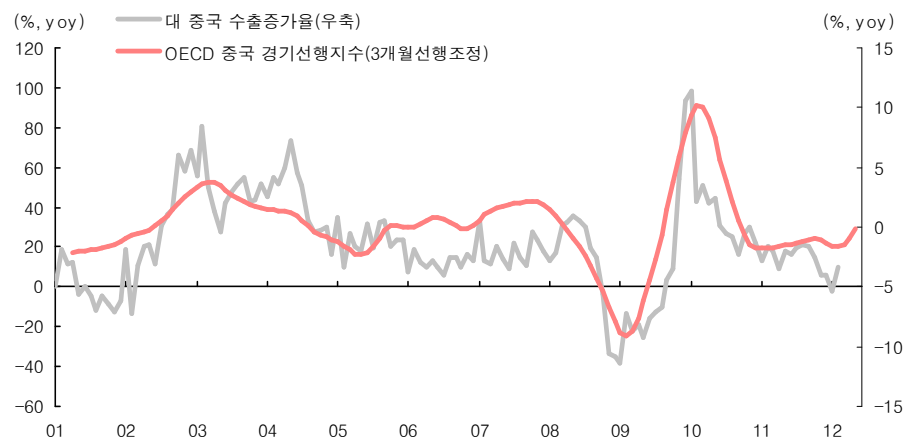
- #1. 수출선행지표 -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약 88%(2010 년 기준) :** 국내경제의 무역의존도는 2010 년 기준 8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무역의존도란 당해 국가의 무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기간의 무역액(수출액+ 수입액)을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수입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OECD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일본 및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단기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향방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수출 선행지표의 하나로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와 국내 수출 증가율



자료 : OECD, 한국은행 SK 증권

OECD 중국 선행지수 증가율과 국내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자료 : OECD, 한국은행 SK 증권

- #2. 글로벌 경기회복 움직임 한눈에 보기 :** 2월 발표치를 기준으로 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10월 100.0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선행지수는 통상적으로 4~6개월 뒤 실물경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의 상승세는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2012년 2~3분기 정도에 경기의 확장국면이 3개월 연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선행지수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좀 더 상세한 세계 경제의 회복 움직임 예측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가로축은 2월 국가별 OECD 경기선행지수, 세로축은 선행지수 전월비의 3개월 평균값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기의 회복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미국,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고,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2012년 중반의 세계 경제는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꺾여 있던 다른 지역 국가들도 회복세로 돌아서지만, 유로존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은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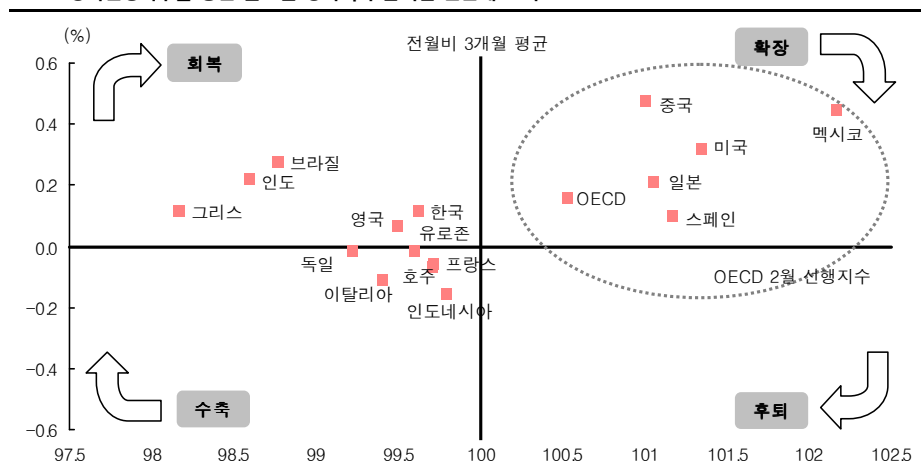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국면 하락국면 데이터 분석

	평균 개월 수	표준편차
상승	116	695
하락	110	610

자료 : SK 증권

주 : 기간 1961.1월~2011.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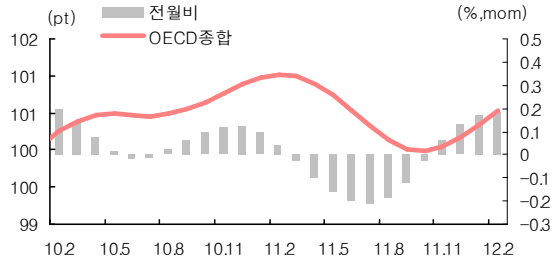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를 통한 글로벌 경기회복 움직임 한눈에 보기



자료 : OECD,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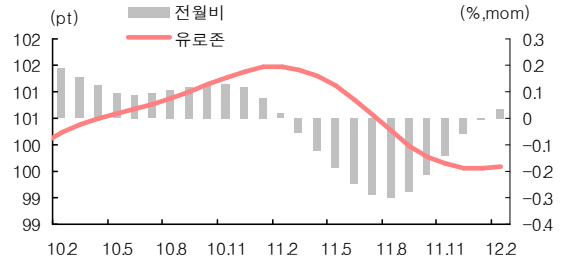
■ [부록] 2월 주요 OECD 경기선행지수 차트북

OECD 종합 - 4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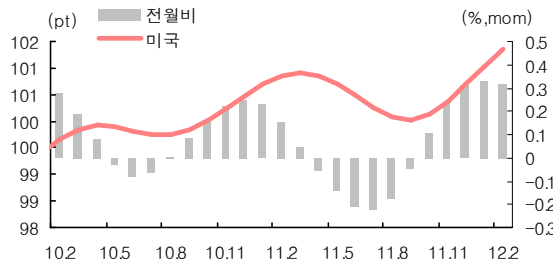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유로존 - 2개월 연속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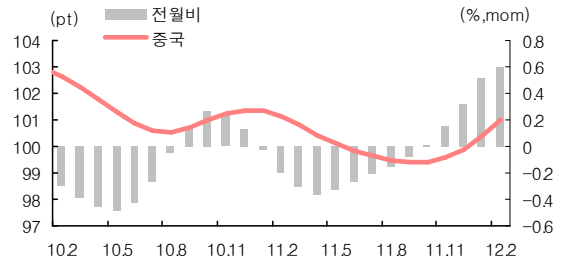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미국 - 5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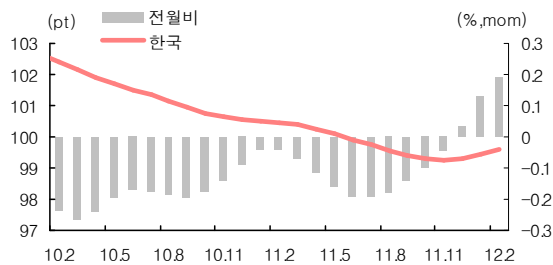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중국 - 4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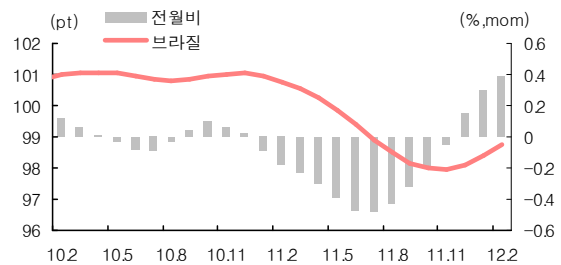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한국 - 3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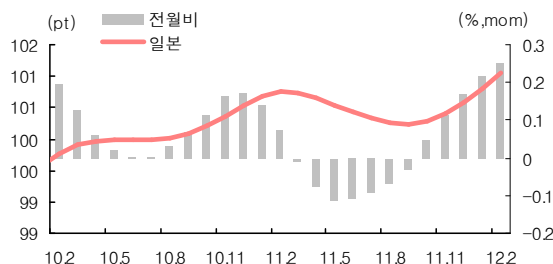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브라질 - 3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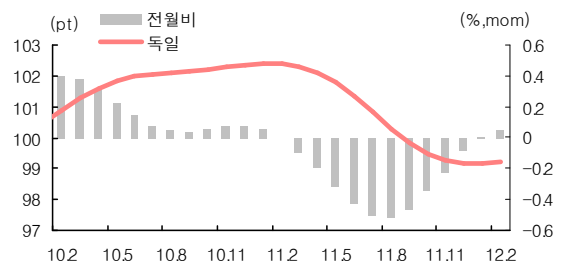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일본 - 5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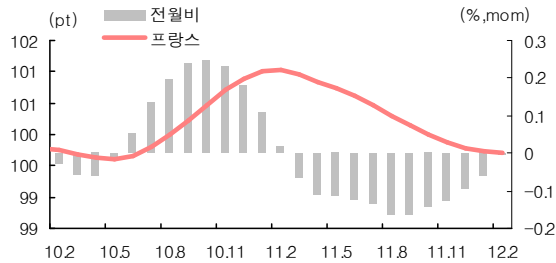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독일 - 1개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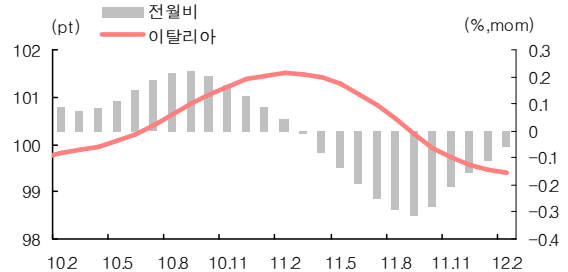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프랑스 -1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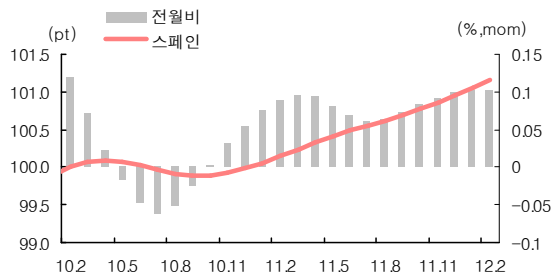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이탈리아 -1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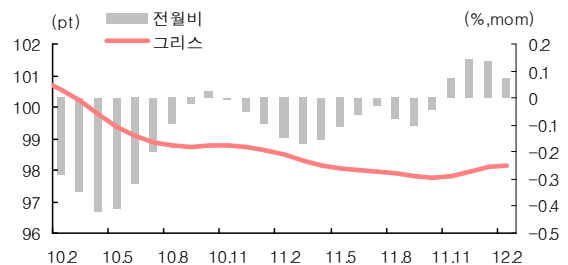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스페인 -17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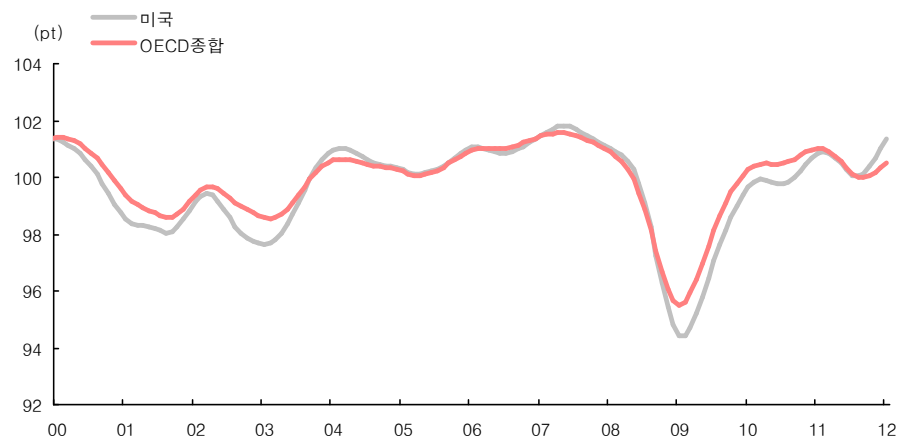
자료 : OECD, SK 증권

그리스 -4개월 연속 상승



자료 : OECD, SK 증권

OECD 종합 경기선행지수와 OECD 미국 경기선행지수



자료 : OECD, SK 증권

Memo

Memo

리서치센터장		김성욱	8009	systemkim@sk.com
기업분석팀	총괄, 통신서비스/자주회사	이동섭	8831	telecom@sk.com
	제약/화장품	하태기	8872	tgha@sk.com
	유통/상사/제지/교육	김기영	8893	buyngogo@sk.com
	건설, 전자재	박형렬	9044	phr@sk.com
	자동차	김용수	8901	kysoo@sk.com
	운송, 유틸리티	복진만	8897	sks20280@sk.com
	철강/비철금속	이원재	8923	wonleewj@sk.com
	기계/조선	이지훈	8880	sa75you@sk.com
	인터넷/S/SW	최관순	8812	Ks1.choi@sk.com
	화학/에너지	손지우	8827	jwshon@sk.com
	미디어/엔터	이현정	8891	comengie@sk.com
	반도체	최성제	9045	dchoi@sk.com
	전기/전자	김현용	8355	hyunyong.kim@sk.com
	디스플레이	정한섭	9005	hanchong@sk.com
	금융	배정현	8813	jungking@sk.com
	증권	안정균	8910	jkahn@sk.com
	스물캡	전상용	8814	kevin8052@sk.com
	스물캡	강문성	9269	mskang74@sk.com
	스물캡	조진호	8908	handset@sk.com
	포트폴리오	김 승	8919	seungeeee@sk.com
	RA	박상연	8826	sangyeon.park@sk.com
	RA	고봉종	8856	ko@sk.com
	RA	조인욱	8811	iwjo@sk.com
	RA	한승재	8810	hansj@sk.com
	RA	이윤석	8809	yslee13@sk.com
	RA	정순오	8898	snowc@sk.com
	RA	최연식	8828	yun.choi@sk.com
투자전략팀	총괄, 투자전략/경제	박정우	9004	Jwpark7@sk.com
	Market	김영준	8904	Sello-ccm@sk.com
	퀀트	정수현	9003	shj5474@sk.com
	RA	고승희	9006	seunghee0824@sk.com
	RA	조 준	8921	Cho.joon@sk.com
채 권	채권	염상훈	8882	yum@sk.com
	채권 (Credit)	이수정	8911	lsj0816@sk.com
	채권 (Rates)	김명실	8917	ms_kim@sk.com
	RA	윤원태	8887	yunwt@sk.com
	Design / Editing	이애리	8373	alis.lee@sk.com

* 본 보고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된 것으로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치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본 자료를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K Contact Points

기업금융 1팀

총괄 (1,2팀)	김정열	부장	8428	ez4u@sk.com
회사채/ 주식인수영업	황금택	차장	8269	goldentaxi@sk.com

기업금융 2팀

회사채/ 주식인수영업	김경민	차장	8344	airkim@sk.com
	연명필	대리	8073	antaga@sk.com

SF팀

총괄	최성운	팀장	8088	csw33@sk.com
구조화금융	백종대	부장	8734	jdbae@sk.com
구조화금융	김응수	차장	8402	redt21@sk.com
구조화금융	곽세용	차장	8350	kwaksnet@sk.com
구조화금융	이상민	과장	9581	basori@sk.com
구조화금융	한원석	과장	8456	hellomhan@sk.com
구조화금융	김재훈	대리	8902	johnk@sk.com
구조화금융	김현우	대리	8741	sks20080016@sk.com

CM1팀

총괄	이병휘	팀장	8732	leebh2k@yahoo.co.kr
투자상품개발	오성남	부장	8481	snoh@sk.com
투자상품개발	황 찬	부장	8922	chanhwang@sk.com
투자상품개발	이호림	차장	8389	kilogram80@sk.com
투자상품개발	김현수	차장	8353	tten@sk.com
투자상품개발	지의종	과장	8918	jzong@sk.com
투자상품개발	장재혁	과장	8385	20862@sk.com

CM2팀

총괄	문한웅	팀장	8737	hanwoong@sk.com
투자상품개발	나윤수	차장	8239	rayouns@sk.com
투자상품개발	백승욱	차장	8746	richard.baek@sk.com
투자상품개발	김경훈	과장	8313	Khkim7@sk.com

종합금융팀

총괄	조성수	팀장	8448	css0809@yahoo.co.kr
CRCD중개영업	권용목	부장	8450	ssky111@hanmail.net
CRCD중개영업	오정훈	차장	8293	oksk@sk.com
CRCD중개영업	이수현	과장	8389	priden@sk.com
CRCD중개영업	최기록	주임	8498	girog7@sk.com
영업지원	최나영	사원	8457	20080346@sk.com

법인금융팀

총괄	김수홍	팀장	8650	alexshk@sk.com
수익증권영업	이동환	부장	8383	leedh2k@yahoo.com
수익증권영업	엄관식	부장	8387	ksuhmno1@sk.com
수익증권영업	신종호	과장	8298	martinshin@sk.com
수익증권영업	고경미	대리	8397	kkml002@sk.com
수익증권영업	안지운	주임	8797	nolja8852@sk.com

채권영업팀

총괄	오민영	팀장	8517	myline@sk.com
채권중개	조득영	부장	8403	chodybond@sk.com
채권중개	전동한	차장	8258	jdh1107@yahoo.co.kr
채권중개	최희승	차장	8519	lionhill@hanmail.net
채권중개	홍성용	과장	8340	hongsy@sk.com
채권중개	이의혁	과장	8793	hyuck@sk.com
채권중개	송정호	과장	9108	bondsong@sk.com
채권중개	조원희	주임	8257	jwh23@hanmail.net

법인영업 1팀

총괄	신보성	팀장	8550	sbs@sk.com
주식영업	성백웅	부장	8535	bws@sk.com
주식영업	이준기	부장	8967	20090154@sk.com
주식영업	조종수	차장	8592	sbehold@sk.com
주식영업	추승열	차장	8959	duludulu@sk.com
주식영업	임지웅	대리	8554	limjung@sk.com
영업지원	박효선	주임	8553	hyosun@sk.com
영업지원	박소영	주임	8551	psydob@sk.com

법인영업 2팀

총괄	오웅진	팀장	8550	chej@sk.com
주식영업	안용진	부장	8537	madein@sk.com
주식영업	김영채	차장	8526	neozodia@sk.com
주식영업	김유석	과장	8406	asmai@sk.com
주식영업	이용한	과장	9260	yougoigo2@sk.com
주식영업	정대훈	과장	9034	derekchung@sk.com
영업지원	서윤희	대리	8530	junges@sk.com
영업지원	한민정	주임	8694	20100027@sk.com
영업지원	한경은	주임	8982	sks20070082@sk.com

법인영업 3팀

파생영업	김인원	부장	8521	kjw97@sk.com
파생영업	박정민	차장	8523	sks.20110129@sk.com
파생영업	박근환	과장	8592	parkkun@sk.com
영업지원	김보혜	대리	8277	mama@sk.com

리서치센터	3773-8876	기업금융1팀	3773-8428
채권영업팀	3773-8517	기업금융2팀	3773-8088
종합금융팀	3773-8448	C M 1팀	3773-8732
법인금융팀	3773-8383	C M 2팀	3773-8737
법인영업1팀	3773-8550	P E 1팀	3773-8883
법인영업2팀	3773-8951	P E 2팀	3773-8071
법인영업3팀	3773-8521	P E 3팀	3773-8745
I P O 팀	3773-8353		

본사 및 지점망

서울

영업부	3773-8245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2F (여의도동)	신촌지점	323-824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4F (창천동거촌빌딩)
명동지점	774-8245	서울시 중구 명동7길 13, 2F (명동1가증권빌딩)	역삼역지점	567-82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3, 3F (역삼동,고운빌딩)
대치역지점	562-8245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36, 3F (대치동,원플러스상가빌딩)	신반포지점	3476-824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09길 102, 12F (삼원동,잠원빌딩)
압구정지점	515-824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4F (신사동,증권빌딩)	송파지점	449-8245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4F (가락동,효원빌딩)
종로지점	745-8245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57, 3F (수송동,호수빌딩)	방배역/자산관리지점	521-824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3, 1F (방배동,양지빌딩)
서초지점	596-824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7, 3F (서초동,웰컴빌딩)	논현지점	553-8245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1F (신사동,강남빌딩)
테헤란로지점	569-82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 3F (대치동,삼흥제일빌딩)	강남PIB센터점	738-824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4F (서초동,GT타워)
여의도자산관리지점	3773-867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2F (여의도동)	청담지점	3448-824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09, 3F (청담동,명보빌딩)
서린지점	725-8245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3F (서린동,SK에너지빌딩)	도곡PIB센터점	2057-8245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30길 13, 13F (도곡동,대림아크로텔)

지방

수원지점	(031)206-824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2F (영통동대우월드마크)	해운대지점	(051)720-8245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3F (우동,백스코센텀호텔)
안산지점	(031)416-824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3F (본오동,안산노포아빌딩)	울산지점	(052)258-8245	울산시 남구 삼산로 243, 2F (달동,증평빌딩)
성남지점	(031)721-824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4F (태평동,대한생명빌딩)	남울산지점	(052)222-8245	울산시 남구 수암로 134, 2F (야음동, 일중학원빌딩)
분당지점	(031)708-82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00번길 2, 2F (서현동,한국학원빌딩)	대구지점	(053)254-8245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F (덕산동,삼성생명빌딩)
정자동지점	(031)749-82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로 121, 1F (정자동,다산스타파크상가)	대구서지점	(053)651-8245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176, 3F (본동,송림백화점)
이천지점	(031)634-8245	경기도 이천시 아침매천로 1233, 3F (창전동,화창빌딩)	성서지점	(053)586-8245	대구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12, 3F (이곡동,해일빌딩)
남양주지점	(031)594-8245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16번길 29, 3F (호평동,늘봄타워)	영천지점	(054)336-8245	경북 영천시 역전로 8, 5F (완산동,청우빌딩)
의정부지점	(031)861-824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F (금오동,대송프라자)	왜관지점	(054)975-824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15, 2F
경기광주지점	(031)797-8245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2F (경안동,광주프라자빌딩)	진주지점	(055)759-8245	경남 진주시 동진로 183, 3F (상대동,태웅빌딩)
일산지점	(031)918-824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79번지 흥은빌딩 5층	포항지점	(054)249-8245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64, 2F (남빈동,대흥빌딩)
중동지점	(032)325-824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3F (상동,산업은행빌딩)	창원지점	(055)262-82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3, 1F (상남동,서울메디칼센터)
서인천지점	(032)568-8245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3, 4F (삼곡동,우민빌딩)	삼천포지점	(055)834-8245	경남 사천시 중앙로 85, 3F (동금동,경남은행빌딩)
구월동지점	(032)464-8245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221, 3F (구월동,아세아프라자)	서진주지점	(055)744-8245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84, 5F (신안동,신안빌딩)
홍성지점	(041)634-824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66, 5F (선일빌딩)	광주지점	(062)222-8245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4F (금남로3가,제일은행빌딩)
공주지점	(041)858-8245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F (반죽동,금성빌딩)	상무지점	(062)374-8245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9, 4F (태평동,동양빌딩)
대전지점	(042)472-8245	대전시 서구 둔산로 59, 2F (둔산동,아이빌딩)	남원지점	(063)633-8245	전북 남원시 남문로 437, 3F (하정동,유남빌딩)
청주지점	(043)268-8245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 3F (기경동, 청주여객터미널)	전주지점	(063)287-82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 2F(하정동1가,영광빌딩)
금양지점	(043)878-8245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3리 247-7번지 2층	고창지점	(063)562-8245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02, 2F (전북은행빌딩)
부산지점	(051)633-8245	부산시 동구 조방로16번길 5, 2F (범일동,SK네트웍스빌딩)	순천지점	(061)746-8245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4F (연향동,IG빌딩)
구서지점	(051)581-8245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3F (구서동,금정타워빌딩)			
연제지점	(051)851-82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2F (연산동,프라임타워빌딩)			
마산지점	(055)298-824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4F (석전동,간설공제조합빌딩)			

본 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된 것으로 입수가 가능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치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본 자료를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투자판단 5단계 (3개월 기준, 국고채 3년물 수익률) -50bp 이하 **Overweight+** (듀레이션 적극 확대) / -20bp 이하 **Overweight** (듀레이션 확대) / -20bp~-20bp **Neutral** (듀레이션 중립) / +20bp 이상 **Underweight** (듀레이션 축소) / +50bp 이상 **Underweight+** (듀레이션 적극 축소)